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강권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오늘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2·3부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찬양예배)

복음에 기초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2011년도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현에 주신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신령한 예배**를 감사!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인생을 신령하고 거룩한 예배의
지리로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
한 예배를 통해 여전히 죄를 줄이고 하나님께
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계속 나를 거룩한 예배
의 지리로 인도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
님의 부름이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장사, 11교구)**

남편 **직장** 관계로 자원의 교회를 4년간 섬기다가
다시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충현의 예배를 드리려고
본당에 앉았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의
감격과 감사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충현의 신령한 예배에 예
배자로 다시 알려주신 주님 연약한 부부의 예배 모습이 주께서 찾으시
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
고 감사합니다.' **김태복(장사, 3교구)**

십자가를 전하는 천국일꾼이 양성됨을 감사!

초등부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감사해요. 예전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는데 천국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많은 자신감을 갖고 나서게 되
어 많이 감사해요. 더 예수님을 알고가고
더 많은 곳에 나설 수 있는 일꾼이 될게
요. **조은혜(초등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
육하기 위해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
요. 저는 그 가운데서 충현장학성과
대학부 회원으로서 믿음의 분리가 점
점 성장하는 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
도로 천국일꾼이 양성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박사영(장사, 11교구)**

십자가를 통하여 민족이 복음화 되고 있음을 감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저는 가시나무에 아주 작은 열매이지
만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라날 것이 좌박에 없는 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안게 된 귀중한 삶이기 때문에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
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혜영(장사, 새기
축성목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반
기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다
큰 이름은 너네'를 외치며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록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칠
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에 오직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선재(장사, 새기
축성목회)**

십자가를 전하는 **세계 선교**임을 감사!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각국에 나아
가 예수님만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선교지인 '국내와국인선
교부'를 통하여 복음을 거부했던, 불교나 이슬람권 종교
를 가진 형제자매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기뻐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 이라고 고백하며 기쁘고 감사로 돌아
가는 것을 볼 때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영(장사,
국내와국인선교부)**

선교의 도구로 사용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
령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우리 선교
가에 대장되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순(장사, 22교구)**

십자가에 담긴 **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눔을 감사!

교구 및 부서에서 같은 또래의 이웃과 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한 교제 가운데 서로가 만난 주님에 대해 나눌 수
있다는 것과 서로를 위해 기도로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감
사합니다. **김영경(장사, 17교구)**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통해 힘든 세상 속에서 힘이 나게 해 주시
니 감사합니다. 특히 공부나 친구 사이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통해서 감
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을 살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윤영진(장사, 2교구)**



DOES DEATH FRIGHTEN YOU?

(8)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9)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 (12)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isown him, he will also disown us;

(13) if we are faithless, he will remain faithful, for he cannot disown himself.

(2 Timothy 2:8~13)

Without doubt, most people are afraid of death. The Bible reassures us that Jesus Christ rose from the dead, and that whoever believes in Jesus will not perish. Do you remember that Christ died and rose again? Do you practice your faith? Paul, imprisoned in Rome as the result of persecution under Nero, realized when he wrote today's Bible passage that his death was near. He wanted to encourage Timothy's faith. Paul understood that his faith united him with Christ,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Rom. 6:5-8). Paul experienced the nearness of death many times, and was not scared. His mindset was on the gospel. He wasn't concerned about his own life, but rather put his energies toward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message,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to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2 Tim. 2:9-10). Why should Christians be scared about death? If you really trust God in Christ then you have nothing to fear.

Paul wanted Timothy to remember that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2 Tim. 2:8). Jesus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 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Rev. 1:17-18). Jesus Christ conquered death,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Rom. 6:9). The children of grace cannot be controlled by death. Jesus promised that whoever follows Him that He will give them eternal life. Eternal life is guaranteed to all followers of Christ,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But each in his own turn: Christ, the firstfruits; then, when he comes, those who belong to him" (1 Cor. 15:22-23).

Paul wanted Timothy to understand that suffering for Christ was in accordance with the gospel. Most of today's twenty-first century Christians never experience suffering for Christ. Jesus said, "Remember the words I spoke to you: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also" (Jn. 15:20). Do you believe it? I want you to suffer for Christ. Not many preachers will say that, and not many believers are happy to hear it. The Word of God tells us that Jesus Christ suffered and that we will have to suffer too. Sadly, too many Christians think that once they accept Christ as their Savior that their lives here on earth will only be filled with happiness and worldly success. My dear friend, the way of the gospel is the way of the cross. We are not better than Jesus Christ,

"A student is not above his teacher, nor a servant above his master ...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Mt. 10:24-28). Please respect Jesus Christ and the Word of God. Ananias didn't want to visit Paul, but Jesus told him,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I w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 (Act. 9:15-16). Do you really love Jesus Christ? Do you really want to practice the Bible's teachings? If so, you must expect suffering for Christ just as Paul preached. Paul's ministry was certainly a suffering ministry, "Are they servants of Christ? (I am out of my mind to talk like this.) I am more. I have worked much harder, been in prison more frequently, been flogged more severely, and been exposed to death again and again. Five times I received from the Jews the forty lashes minus one. Three times I was beaten with rods, once I was stoned, three times I was shipwrecked, I spent a night and a day in the open sea, I have been constantly on the move. I have been in danger from rivers, in danger from bandits, in danger from my own countrymen, in danger from Gentiles; in danger in the city, in danger in the country, in danger at sea; and in danger from false brothers. I have labored and toiled and have often gone without sleep; I have known hunger and thirst and have often gone without food; I have been cold and naked" (2 Cor. 11:23-27). Can you imagine such suffering for Christ? Paul told Timothy, "But you,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discharge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2 Tim. 4:5).

Paul wanted Timothy to be assured that his reward in heaven would be commensurate with his faithfulness on earth,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isown him, he will also disown us; if we are faithless, he will remain faithful, for he cannot disown himself" (2 Tim. 2:11-13). Suffering for Christ does not mean involuntarily being put to death but rather our willingness to sacrifice for Jesus Christ. Jesus tells u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 For the Son of Man is going to come in his Father's glory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Mt. 16:24-27). You will live with Jesus Christ eternally! Doesn't that excite you? You really need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This will give you a great result that is the glory of God and the glory of life.

Let's be sincere servants that enter the gates of heaven. I pray that you listen to this message and that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you can say, "Amen". I challenge you to trust God completely. I hope your faith convinces you that death is glory for you with Jesus Christ. Amen. 

죽음이 여러분을 긴장시키는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¹⁾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²⁾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³⁾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8~13)



김성환 목사

의심할 여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로 로마에 투옥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5-8).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 죽을 뻔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잃을가 걱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의 매시자를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바울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딤후 2:9-10).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디모데가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 2:8).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7-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니라”(롬 6:9). 그러므로 온종의 자라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고전 15:22-23).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복음과 함께 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할이 복음적인 것임을 디모데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요 15: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고난을 말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신자들 그들 말로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았었듯이 우리도 고난 받아야 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

하지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4-28). 제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십시오. 아나니아는 바울을 방문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행 9:15-16).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을 고난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확실하게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거니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슬에서 자주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7).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고난 당할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도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신실함에 따른 하늘의 상급이 있다

바울은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의 신실함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확실하기를 원했습니다. “미쁘니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1-13).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4-27).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까! 흥분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삶의 영광이 되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이 되어 천국 문에 들어갑시다. 이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죽음도 영광이 될을 여러분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아멘. ■

2011년 제3차
청지기리본권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복음을 계산하며 듣는다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니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조심하고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만을 구별하여 들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의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 속의 티만을 걱정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곧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마음 밖에 심겨지지 아니한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여 감동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실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것이 복음인 것이다.

복음을 계산하여 듣는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며,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천국과도 관계가 없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와도 상관이 없는 삶이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가 깨달기 원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가수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배혜수인수집사, 23교구

무엇을 듣고 움직이는가?

이번 청지기리본권의 제목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출 수 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확답을 주시는 말씀이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주님, 저런 어떻게 이해해야 되요?」 「아니, 주님, 그래도 저런」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수록 질문만 되돌아오고 몸은 움직이나 내 마음 깊은 곳은 움직이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동일하시지만 나 역시 정그로움 정도로 동일하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신앙의 연수는 많으나 내 속 깊은 바닷은 죄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날 이해시키시고 계셨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너 나를 믿는 거냐? 너의 오랫동안 쌓여진 내 신앙관을 믿는 거냐?」 그랬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안에 있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잘 세워진 신앙관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판단하고 있으면서 때론 분노하고 때론 한숨짓고 때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주님은 엘리야에 대한 설교 말씀, 피터 진로님들의 엘리야와 엘리사 주재발표를 통해 고집스러운 나에게 딱 맞는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그렇게, 그렇게 인도하셨다. 「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과 고집스러운

운 저를, 정말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군요.」 집사리에 들기 전 얼마가 유치원 아이를 이해시키듯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해시키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켰다. 그리고 마지막 청지기리본권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셨다. 「넌 내 말이 아닌 내 신앙관이 중요하고 살아 있는 날 죽어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보고 판단하곤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분노하였었지? 그런데 난 살아 있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넌 나요?」 주님이 나를 해리시기가 시작한다면 그것은 생리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내 신앙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해 순조로운 돌이켜 보 내 영의 주인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호흡하시는 주님인지 나의 그릇한 신앙관인지 분별하여 돌이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간구하는 것과 더불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양육권을 주께 맡겨 생명이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길 구하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또한 그 주님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임을. 이혜련집사, 32교구

너무나 감사하다

청지기리본권의 말씀을 듣노라면 충현교회 교인이고 교역자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다. 복음이 최매해자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어디서 이토록 강력하게 들을 수 있는가? 청지기리본에서 청지기리본으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양전집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는 이미 우리 충현교회뿐이라 생각된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도 든다. 이번 청지기리본권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된 말씀이었다. 가장 잘 듣고 몸에 좋은 음식이 가까이 있는데도 맛도 없고 몸에 나쁜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번 청지기리본에서 선포된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야 한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비록 수화하고 자막이 목사님의 말씀을 100% 전달해 주지는 못하지만 놀라운 성도들이 소리 없이 수화로 「아멘」 하는 모습을 볼 때 더욱 감사하다.

청지기리본은 단지 두 시간의 말씀 전치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청지기리본을 해왔다. 여름 내내 찬송을 연습하면서 청지기리본을 하였고,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마침내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듣는 사람은 두 시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두 시간의 말씀을 위해 2백 시간도 더 넘는 시간을 기도하여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청지기리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은혜의 전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충현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은 교회다. 복음을 들어야 할 때 들을 수 있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값진 마음으로 물을 찾는 양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순수한 기쁨의 복음을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은 율법보다 우선하고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두어 둔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복음 앞에서는 계산하는 계산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그리스도안으로 충분하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이번에도 좋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진기목사, 애버리퍼

감사와 큰 은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끝에 우리 가족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생령 살리는 귀한 청지기리본에 동참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양식을 얻어 행복하고 유익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감사와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박광민집사, 24교구

아멘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아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가족과 큰 언니, 조카와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한 세상에 과연 나는 성도로서 삶을 애써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란 주제가 요즘의 나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내가 구속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지, 세상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넘쳐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또 나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내가 순종했는지, 주님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인도하소서



서 두 세계 사이에서 헤매이지 말고 현 사정 남은 삶의 시간에 대해 온전히 생명의 양식인 말씀에 지체로우며 순종함으로써 생리뿐 아니라 실천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소서. 복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목사님의 외침에 '아멘'이라고 가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오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리라(창 1:31) 하신 주님, 죄인들에게 듣는 귀를 활짝 하여서 보혈로 씻어 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말씀을 더 사모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임팔렐렌스, 2주

자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같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하라하시고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나의 마음은 십자가와는 멀지만 하다. 어떤 시절 주말학교 때부터 말씀을 듣고 오늘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각오하며 주님을 따라왔지만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은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부족했고,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찾을 때와 같이 영혼의 갈증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십자가 복에 귀 기울였으며 영혼의 지킴사인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하였는지 자신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웠던 하다. 십자가에 나 아갈 때 나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또한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과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의 날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 주실 것이와 믿는다. **최은영목사, 12주**

참 감사했습니다

창치기후련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려고도,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듣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저는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제가 듣고 싶은 대로 골라 듣는 자였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자 한 마음대로 살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듯 합니다. 참된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주님께 구하면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신불현(신동명)**

모든 기대를 넘어선 은혜

충천교회 부임 후 세 번째 맞이한 창치기후련인데 매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새롭게 주어짐에 너무나 감사하다. 사실 지난 제2차 창치기후련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이상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창치기후련의 결과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로 다 되었다.

복음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늘 빛과 찾아봐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찾기 어려운 이때에 생명의 말씀을 이곳에서 하라하신 주님께만 찬양 드리기 원한다. 사실 이런 축복한 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 스스로 말씀을 삼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만일 색은 음식이나 모조품을 별 탈 없이 잘도 받아 먹는데만 분명 그 영혼이 죽어 있거나, 상당히 위험한 상태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말씀을 비관하여 헤리라는 자리에 있어 있는 자는 정말 믿음의 세계를 모르기에 그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양심과 세상의 가치관과 잘해 볼수록 이는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그 양식을 매일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이 생명의 말씀만 있다면 그 어떠한 사탄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말씀이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너무나도 깊이 박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사탄은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환란을 우리 앞에 펼쳐 놓고 있기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날 창치기후련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영적 세계의 이야기임이 명확히 보여지는 신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아주 아름다운 것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 놀라게 전리의 세계를 보여주며 비전리의 겹겹을 하나하나 벗겨 나갈 때 내 마음은 연신 '아멘 아멘'을 외칠 수밖에 없었다. 복음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내 심령에 기쁨을 주셨다. 복음은 안다. 모른다. 의 개념이 아닌, 매 순간 복음에 배고파하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은혜의 세계임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귀한 주의 은혜 생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더욱 알고자 하는 이 영적 갈망은 오직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짐을 알게 됨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들을 집으로 갈망하며 쫓아가는 은혜의 세계는 분명 우리 앞에 펼쳐진 마귀의 모든 계책을 능히 뛰어넘어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게 할 것이다. 사실 내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행운아 중의 행운아가 바로 나다. 왜 창치기후련이 말씀의 풍성한 잔치잔치에 내 영혼 가득 채운 받은 풍성함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말씀과 찬양,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은혜는 바로 오늘 이곳이 천국임을 내게 가르쳐주었다. **함평루(최은영, 대북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각자 못 갈 이유를 대고 전처에 참석함을 거절하였으나 이번에도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교회 가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또 다시 느끼게 되어 감사와 기쁨이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빌었던 말씀을 그 구원받은 성도로의 삶을 살고,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데 나의 실 가운데 복음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전하지 못함에 얼마나 갈급해 하였는지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장세환목사, 12주**

나의 생각과 행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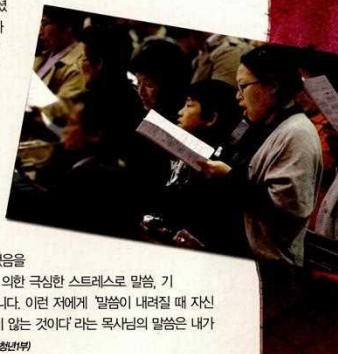
성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머릿속에서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또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하신 말씀이 정말 나의 생각과 행실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전현우(김사, 17주)**

참된 가치인 십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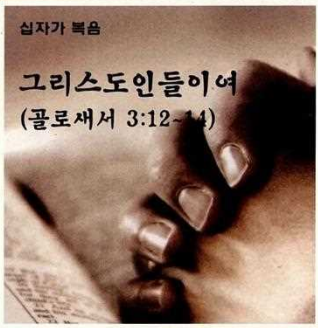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가운데 선 죄인들을 위하여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참혹한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내려졌지만, 너무 무자하여 이 귀한 복음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끌고 들어가 세상의 타락과 타락에 빠져버릴 것들과 바꾸어 삼킨서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 믿으며 멸망의 날은 갈피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던 어리석은 나에게 주님은 오늘 창치기후련을 통하여 나의 귀를 열어 주셨다. 저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려는 주의 위엄에 찬 음성을 들려 주시며 회개로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된 가치인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 그 해아림의 실천과 순종을 다함으로 생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윤순목사, 17주**

내가 정말 죄인임을

충천교회 회도의 성도가 되고 창치기후련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창치기후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회개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면서 저의 신앙은 세상에 의해 움직이는 불안정한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치기후련이 있기 몇 주 전 회개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씀,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말씀이 내려질 때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정말 죄인임을 또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최재현(전남부)**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들이여
(골로새서 3:12-14)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빛진 형벌을 대신 갚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 왔던 율법과 전통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사 53:8).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은혜를 믿었던 것이다(골 3:13).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골 3:1-2).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사를 외면한 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 모든 전통과 율법에 충실했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벧전 1:2). 다른 기준으로 증거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례(롬 7:24-25)했었지만,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8-9).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자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 선택 받은 자로서 행동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이들의 행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뿐이다(마 16:24).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랑의 옷을 입은 모습이다(골 3:12). 이 옷을 입은 자는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기에 회개하게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명시하게 될 것이다(롬 2:4). 무려 1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노아의 방주에 오른 사람은 여덟 명뿐이었다(벧전 3:20). 바로 이들이 선택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따라 좇고 현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다(고후 6:6; 딤후 1:16).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십자가로 충만해야 한다.

● 다른 자들을 은혜로 대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은혜로 대하게 된다. “가라”(행 1:8)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은혜로 순종하기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골 3:13-14; 롭 7:42). 십자가의 은혜가 불가능하게 만다(고후 2:7). “너희가 무슨 일에도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고후 2:10). 바울은 회심한 후에 다른 자들을 오직 은혜로 대했다(고후 12:13).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애굽의 바로는 열 번에 걸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 반면, 라합은 직접 들은 것도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히 11:31).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복음을 믿는가? 자신이 진정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 보자. 선택 받은 자로서 행동하자. 그리고 다른 자들을 은혜로 대하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어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66

말씀이 이루어짐
: 제자들이 떠나다(마태복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상황(마 26:40-55)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26:55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마태는 56절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마 26:56). 이 구절의 초점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 계획의 성취라는 것이다. 이 초점을 놓칠 때 마태복음 26:56을 오해하게 된다. 실제로, 마태복음 26:56에 대해 마태가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여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여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을 시작(마 1:1)할 때도 그랬지만, 마태는 구약을 떠나지 않았다. 단지 그는 구약의 렌즈(선지자들의 예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까지 마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은 구약 말씀의 성취였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마 1:22).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마 26:56). 이와 같은 특징은 마태복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에도 마태는 밝혔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 이루려 하시니라”(마 13:35).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아래 있음을 말하였던 것이다(마 26:54). 이러한 태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고 했던 바울의 관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

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십자가 중심이었다(고전 15:3).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시편도 예외가 아니다. 시편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볼 수 있다(시 37:14, 38:12, 41:7, 9, 71:11). 이사야서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묶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사 53:12). 사기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마 26:42). 예수님은 스스로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복음서의 기자들, 특히 마태는 빼놓지 않고 밝혔다. 예수님의 말씀과 움직임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잘 기술되어 있다(마 26:45-46, 52-56).

예수님은 갓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피를 원하노라”(마 26:42).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칭하시며,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한 것은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그 자체였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한 걸음을 멈추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결을 받은 인자가 아니라, 죄인이자이다. 죄인이자이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 매 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은 최짐 말은 구주를 믿은 거랍니다!



주간찬양실에 수많은 듯 고개를 내민 백승애 성도. 6개월간의 길다면 긴 새가족양육과정을 마친 따끈한 새가족이다. 나이는 올해로 꼭 천이나 무척이나 젊고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네 정다운 어머니의 얼굴. 그녀에게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 보자.

Q. 교회에 언제부터 출석했고, 인도자는 누구인지?

새가족이라고 하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나는 나 스스로 나왔다.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나왔다. 같은 동년에 사는 동생과 올해 1월 중순 부름터 나와서 지금까지 결석도 없이 교회에 잘 출석한 것 같다.

Q. 어떻게 교회에 나를 생각을 했나?

나는 누가 가르쳐주었다기보다 심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졌다. 이제 내 나이에 서서히 노년으로 양해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았다. 지옥에 가기 싫은 마음도 컸다. 이렇게 말하면 우습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왜 교회에 나오지 못했나?

아직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은 내가 왜 죄인인지 알지만, 당시에는 세상 속에서 짓는 죄만 죄인 줄 알았다. 세상 속에서 짓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믿었다 보다.

Q.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되는지?

처음에는 대예배를 드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많았다. 그래서 새가족만을 위한 예배를 들으면 쉽게 다가갈 수 있어 특히 그 시간을 사모했다. 지금은 대예배

를 드려도 이해가 가고 말씀과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

Q.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가?

"최짐 말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가" 찬양이 너무 좋다. 나는 어머니와 기도제 목인 동시에 계속 교회에 가는 것을 미루면서 예수님의 속을 애타우고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고, 내가 다른 종교나 미신에 빠지지 않게 도와 주셨다. 나는 언젠가 교회 나갈 사람이야 라고 마음 속으로 되뇌이도록 만들어 주신 분은 다른 어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다.

Q. 예수님 믿고 좋은 점은?

모든 것이 좋다. 교회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구모임과 금요일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즐겁다. 나도 빨리 믿음이 성장하여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다. 오조음의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에 없는 딸보다 예수님이 더 좋다. "예수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백승애 성도는 지난 10월 23일 주일에 세례를 받았다. 죄인이었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은 온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에 백승애 성도의 표정은 외로워 답답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회개와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 모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났고 뭔가 모를 벅찬 감정에 만것 들뜬 기분이었다.

최재·오남규 기자

현제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4(월) ~ 11월 21(일)	13교구 2팀	조은성
11월 14(월) ~ 11월 22(화)	16교구 3팀	김세향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8(월) ~ 11월 16(일)	21교구 3팀	임재복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947	김은희		20	고금신
2948	이경림	서양반	17	조충환
2949	신동주	양육반	17	최현일
2950	허하	양육반	25	배종락
2951	강종희	양육반	25	배종락
2952	김종민		9	조충환
2953	김민정	양육반	2	김민정
2954	고연경	양육반	2	류동택
2955	박일규	양육반	4	
2956	김영진	양육반	4	
2957	신민아	양육반	5	
2958	최정호	양육반	21	최홍길
2959	이소현	유치부	23	
2960	조덕현	양육반	10	
2961	서민지	유치부	1	
2962	이승준	양육반	1	김동희
2963	서민영	유치부	1	
2964	박지우	유치부	22	
2965	김종철	양육반	12	
2966	문재현	양육반	2	윤호준
2967	김재홍	양육반	22	석귀수
2968	최윤영		22	석귀수
2969	김수진		22	석귀수
2970	김수아		22	김영미
2971	김은하		20	김영미
2972	정유리	양육반	20	김영미
2973	이은자	양육반	14	
2974	김혜경	양육반	5	이성길
2975	이성숙	양육반	11	이성길
2976	최성심	양육반	1	장 적
2977	비종진	양육반	9	유정희
2978	유용서	양육반	9	김정남
2979	차기원	양육반	2	최정남
2980	김은수	양육반	18	장정식
2981	허정영	양육반	12	
2982	장영애	양육반	12	
2983	김정애	양육반	11	이수혜
2984	박영민	양육반	6	민동명
2985	권기욱	양육반	6	민동명
2986	조창하	양육반	16	이경자

김정민(교사, 교통부)

선교 일지[2]

선교지에 도착해서는 예전에 전사자들이 팀원들을 위해 밤새 기도했던 모습이 떠올라 나를 기도하려 애를 썼다. 그런데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영적 싸움에서 자주 밀리고 있었다. 우습게도 영적 싸움에서 밀리게 된 것조차 나는 아이들 핑계를 댔다. 아이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깨우면 짜증을 내는 것도 참기 힘들었다. 자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앞에서 찬양하는 교사들과 상관없이 잠만 자기도 하고 오우가 되어 겨우 깨어나서는 찬양은커녕 바운치라도 하듯 유행가 랩을 불러대는 아이들이었다. 또 마을에 도착해서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귀찮아했고 따라서 주기가도 하려 그만다 감사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가득 찬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질 수밖에.

그렇게 첫날 정탐과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아이들을 포기하나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면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할 것이지 이곳엔 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괴로웠다. 선교 천지의 영적 싸움도 힘든데 아이들까지 기대에 어긋나니 정말 죽을 맛이였다. 그래도 그간의 단기선교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려 했지만 나의 마음과는 달리 내 몸은 천천만으로 사색이 끝나고 방에 돌아오면 일행의 세수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하던 자세 그대로 잠에 붙어떨어지곤 했다. 그렇게 나의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되어갔다.

그때였다. 하나님은 참, 내 상식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였다. 내 상식으로서는 아이들을 미워하고 마음에서 그냥 포기하면 되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아이의 작지만 복음을 향한 사랑을 보게 되었다. 사실 이 아이도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 오심보백백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이 아이는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목적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면 주저 없이 차에서 내렸고 땀을 비 오듯이 흘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했다. 그런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나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이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들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엔 언어가 눈에 띄었다. 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성모가 읽어 주는 복음을 현지인들은 알아들었다. 그 성모의 두 번째 재능은 찬양이었다. 밤잠남이 금요찬양집 때 불렀던 기도 라는 찬양을 배우고 싶더니 성모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다. 성모는 악보를 들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성모의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샘솟는 것을 느꼈다. 놀라웠다. 정말 놀라웠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주님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은 나의 앞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감탄만 나왔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내 교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기 들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Copyright© 2011 중화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